



간추린 청렴 소식

[1] 감찰본부, '2018년 자체청렴도' 결과 발표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59개 지검, 지청을 대상으로 '2018년도 자체청렴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등급에 따라 발표하였습니다.

그룹	대상	우수 청
1그룹	7개 지검	대구지검
2그룹	5개 지검	서울북부지검
3그룹	6개 지검	청주지검
4그룹	10개 차치지청	성남지청
5그룹	15개 부치지청	충주지청
6그룹	16개 단독지청	해남지청

검찰청렴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에도 더욱 청렴한 검찰이 되기 위해 청렴 실천과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2] 감찰본부, 전국청 '청렴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9. 3. 21.(목) ~ 22(금) 일선 청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찰 청렴정책,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자체청렴도 등 다양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청렴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3] 부천시청, '정부구매카드 사용 유의사항' 전파

부천시청(지청장 김형길)에서는 '19. 3. '정부구매카드 사용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전직원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절차적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천시청의 청렴활동이었습니다 ^^



알아두세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19. 3. 15.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직자의 갑질행위 금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갑질의 개념, 갑질행위의 유형 구체적 제시 및 금지 조항 신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원, 과잉의전 제공 요구 등 금지 조항 신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행동강령 위반 여부 상담 대상에 갑질 관련 내용 추가
제22조(교육)	행동강령 교육 내용 구체화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중요한 건 굴복하지 않는 용기다."

"Success is not final, failure is not fatal.
It is the courage to continue that counts."

- 영화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 中 -

4월의 추천영화는 '다키스트 아워' (2018년 개봉 / 감독 조라이트) 입니다.

4월의 추천영화
다 키 스투 아 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영국 수상이 된 처칠(케리 올드만)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독일과의 평화 협정을 주장하는 관료들의 반대 속에 나치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 지역에서 독일군에 의해 고립된 연합군 33만명을 구해내는 다이나모 작전을 시행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눈앞의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옳은 길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렴에 이를 수 있는 길임을 일깨워 주는 명대사입니다.

청렴 상식이 쑥쑥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우공이산(愚公移山)

옛날 중국 북산 지역에 우공(愚公)이라는 90세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공의 집 앞에는 사방 칠백리(280km), 높이 만길(약 30km)이나 되는 태행산과 왕옥산이 가로 막고 있어 늘 먼 길을 돌아가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공은 산을 없애야겠다고 결심하고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와 광주리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구려!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어느 세월에 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오?"



그러자 우공은 길게 탄식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들이 계속 할 것이고, 내 아들들이 죽으면 손자들이 할테고 자손 대대로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 산을 옮길 수 있을걸세"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시도하지 않는 일에 의지를 가지고 맞서는 우공의 일화는 우리사회가 부정부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연일 계속되는 부패 뉴스에 우리사회가 청렴으로 가는 길은 거대한 부패의 산에 가로막혀 요원해 보이고 나 하나의 노력으로는 다다를 수 없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하루하루 청렴을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높이 솟아있는 부정부패의 산을 옮기고

청렴한 사회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명심보감에서는 헛된 명리를 쫓아 무리수를 두게 됨을 경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분수를 지켜 안주하라'는 의미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 ① 성심(省心) ② 안의(安義) ③ 안분(安分)

※ 힌트 : Monthly청렴 3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 응모기간 : 2019. 4. 19.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3월 정답은 ① 정보공개 제도 였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추첨
당첨

김○○(안동), 권○○(서울중앙), 박○○(의정부), 김○○(서울북부), 문○○(광주), 이○○(서울남부), 최○○(청주), 김○○(울산), 전○○(인천), 이○○(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처음 가게 되어서 잘 모르고 말을 더듬거리니 조금 짜증을 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면 더 많이 묻게 되는데 조금 불친절하였습니다.

나를 찾아온 민원인은 다른기관을 찾아간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법원포털시스템 내의사건 검색에서 없는 사건이라고만 표시되어 이거 엉터리 아니냐며 화를 냈음에도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어 화를 낸게 무안했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논산지청 열람등사(확정등) 담당자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은 민원인의 칭찬 의견이었습니다. ♪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